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유한킴벌리에서는 고객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발행 유한킴벌리 고객지원본부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우 06178)
TEL 080 - 022 - 7007 | 수신자부담전화
www.yuhan-kimberly.co.kr

유한킴벌리가

우리 아기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아기'와 함께 '엄마'도 탄생하는 순간...

내 몸안의 아이 존재를 전해 듣는 순간, "나도 이제 엄마..." 라고 되뇌어봅니다.

좋은 생각으로 머리를 맑게하고, 아름다운 단어로 모두의 귀를 행복하게 하고
내 아이 건강에 좋은 먹거리로 배를 채우며 아이를 위한 무한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참깨만한 크기의 존재감으로 시작된 모정(母情)이 긴 산고와 서툰 육아로도
퇴색하지 않도록 돌배기 아이 혼자 내딛는 한발 한발에 보내는 응원처럼
유한킴벌리가 세상의 모든 엄마들과 함께 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위해 [엄마라면 알아요3]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가졌던 궁금증이나 회사로 문의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육아정보를 담았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유한킴벌리 고객지원본부 드림 -



엄마라면 알아요³

Contents

- **건강한 우리 아기 피부를 위하여** ----- 4
기저귀 발진
유아형 아토피성 피부염(태열)
화장품에 의한 피부 트러블
- **아기 기저귀, 궁금해요!** ----- 6
알갱이가 물어난다구요? SAP
기저귀 냄새? 안심하세요
벌레로부터 기저귀를 보호해요
- **SOS! 도와주세요** ----- 9
육아 의학 정보
-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 13
엄마와 아기의 고감·모유수유
육아 우울증 자가진단
유한킴벌리 육아포럼 소개
- **유한킴벌리 제품소개** ----- 16
유아·아동용품 / 여성용품 / 가정용품 / 스킨케어 / 시니어용품 / 맘큐
- **유한킴벌리 아기·어린이용품의 제품 안전정책** ----- 19

건강한 우리 아기 피부를 위하여

기저귀 발진이란?

기저귀가 닿는 부분에 붉게 발진이 생기고, 짓무르며, 심할 경우 피부가 벗겨지고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는 접촉성 피부염을 말합니다. 기저귀 발진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기저귀 그 자체보다는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피부는 연약하고 부드러워서 조그마한 외부 자극에도 쉽게 발병이 됩니다. 실제로 기저귀를 착용하는 아기에게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 발생원인 및 증상

- 축축하고 젖은 기저귀를 오랜 시간 착용했을 때
- 통풍 저하, 설사, 미열 혹은 감기 등으로 컨디션이 나쁠 때
- 이유식이나 새로운 음식을 시작할 때
- 항생제 복용이나 변이 묽을 때
- 피부 타입의 개인 차에 따라 발생



아기에게 이유식을 할 때 과일주스나 과즙에 의해 대변이 산성이 되면서 아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대변의 자극이나 소변의 암모니아 성분으로 피부 산도와 습도가 올라가면 이로 인해 피부 손상이 시작되어 발진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대처 방법

-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고 갈아 주며, 발진 부위의 피부를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해주세요
- 기저귀를 갈아 줄 때는 반드시 물티슈로 닦거나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 청결을 유지해 주세요
- 아기 피부에 심한 자극을 주지 마세요
-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처방 받은 연고를 발라 주세요
- 연고는 아기 엉덩이를 잘 말린 후 발라 주세요

화장품에 의한 피부 트러블

화장품에 들어 있는 어떤 특정 성분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에 따라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복숭아를 먹으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숭아에 알러지가 있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 발생원인 및 증상

- 환절기나 민감성 피부, 얇은 피부, 잦은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경우 발생률이 높습니다
- 피부가 빨개지고 화끈거리고, 붓고, 가려우며, 뾰루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 원인 물질의 사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수일 내로 증상이 완화됩니다
- 2차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발생부위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손을 대지 않으면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 부작용 피부 검사법 : 소량의 화장품을 귀 뒤나 목 부위에 먼저 바르고 3~4시간 지난 뒤 문제가 있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 증상이 심하고 지속될 경우는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세요

유아형 아토피성 피부염(태열)은 어떤 병인가요?

생후 2개월에서 2년 사이의 아토피를 말하며, 습진 형태로 잘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어린 아기의 피부병이 잘 나으면 태열이라 하였고, 잘 낫지 않으면 습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아에서 흔한 습진성 피부질환은 아토피 피부염, 만성단순 태선,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데 이중 아토피 피부염이 가장 많습니다.

? 발생원인 및 증상

-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소인, 피부보호막의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 생후 12개월 이전에는 특정한 음식물, 꽃가루, 동물 털, 집 먼지, 집 진드기 등에 의해 발생
- 초기 영아기 때는 주로 양쪽 볼이 붉어지면서 붓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긁기 때문에 수포와 딱지가 생기고, 2차적 세균 침입의 우려가 있으며, 피부가 울긋불긋하게 건조해져 갈라지기 쉽고, 조각 형태로 벗겨져 떨어지기도 합니다
- 입이나 눈 주위, 귓볼, 팔꿈치, 무릎 안쪽 등 접히는 부분에 생기고 겨울철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낫는데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 대처 방법

- 가려울 때 심하게 긁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잘라 줍니다
- 피부를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부보습, 환경적인 원인 제거, 항산화 효과가 있는 유기농 야채, 과일 등으로 만든 이유식을 합니다
- 달걀, 우유, 땅콩 등의 음식물은 증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얼마동안은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목욕 시에는 보습 기능이 있는 중성이나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여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에 씻기고, 피부가 축축할 때(3분 이내) 처방 받은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 준 뒤 땀이 나지 않도록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 환경은 항상 일정한 온도와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넉넉한 순면제품의 의복을 입히도록 하고 기급적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 기저귀 궁금해요

알갱이가 묻어난다구요? 걱정마세요

SAP(고흡수성 소재)이란?

기저귀 내부 솜층에 있는 조그마한 알갱이들은 'SAP'이라고 하는 고흡수성 소재로 기저귀를 보송보송하게 유지해 주는 원료입니다. 'SAP'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유럽 및 선진국에서 기저귀와 생리대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원료입니다.

아기 엉덩이에 알갱이(SAP)가 묻어나오

간혹 소변량이 많았을 때, 착용시간을 경과했을 때, 움직임이 활발했을 때 묻어남을 경험하실 수 있으며, 또는 SAP 입자를 최대한 균일한 크기로 하여 분포 시키지만, 커버의 구멍보다도 작은 입자가 있을 수 있어 사용 중 커버 틈을 통해 빠져나와 묻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기 눈에 들어가거나 아기가 먹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SAP은 발진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SAP은 소변의 암모니아 성분이 피부에 머무르지 않게 최대한 소변을 빨리 흡수하여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발진을 최소화 시켜주고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SAP은 수분을 흡수하기 전에는 설탕가루와 같은 수분을 흡수하면 젤리와 같은 형태로 팽창합니다.



벌레로부터 기저귀를 보호해요!

우리가 먹는 쌀 보관함에 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기저귀도 제품의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 벌레의 유충이 침입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 제조공정은 안심, 유통과 보관과정을 확인하세요

기저귀의 제조공정을 보면 분쇄, 고온처리, 여러 압축과정 등을 거치기 때문에 벌레의 형태가 유지되거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먹이나 영양분이 될 만한 것이 없어 일정 기간 동안 서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벌레가 있다면 유통과정이나 보관 중에 포장지의 공기 구멍이나 미세한 틈을 통해 유입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센터로부터 문의해 주세요.

? 아기 몸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요

화랑곡나방 유충(쌀벌레)이 기저귀에 있는 줄 모르고 착용하였을 경우, 유충은 움직이는 사람의 몸 부위로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기의 경우 누워있기는 하지만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유충이 있다 하더라도 움직임이 없는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 기저귀 백안에 어떻게 들어가나요?(화랑곡나방의 경우)

기저귀 포장은 완전 밀봉 상태가 아닙니다. 손잡이 부분의 띠는 선을 비롯하여 결봉투에는 미세하게나마 틈이 있어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랑곡나방 유충(쌀벌레)의 경우에는 곡식을 갠아 먹을 수 있는 뾰족한 입이 있어 기저귀의 결봉투를 뚫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화랑곡나방 유충은 종이 박스나 알루미늄 호일을 뚫을 수 있고 플라스틱도 갠 수 있다고 합니다.

? 세균 감염이나 물리는 일도 안심하세요

화랑곡나방 유충(쌀벌레)인 저곡해충의 서식 장소(곡식, 저장소, 가공식품 포장 내부)는 습도가 낮고 건조한 상태이므로 병원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이런 환경에서 발생한 해충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병원균의 오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저곡해충은 곡식을 섭취하는 해충이기 때문에 사람을 물거나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화랑곡나방 (일명 쌀벌레)

화랑곡나방은 나비 목 명나방과에 속하며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으며 유충은 원통형으로 성장하며 몸길이가 10~15mm 내외이고, 번데기의 몸길이는 7mm 내외로 가늘고 길며 담갈색을 띕니다. 우화된 성충의 날개 길이는 13~16mm 정도이고 지붕모양으로 접습니다. 주로 저장곡류를 비롯하여 건조된 곡류, 과실, 채소, 밀가루 등의 곡물가루, 종자, 2차 가공 식품인 과자류, 씨앗, 초콜릿, 새의 사료 등 많은 종류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높은 종류 중의 하나입니다. 이 화랑곡나방은 온도나 습도,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여름철(25~32℃)에는 알에서 성충까지 약 30일~50일 정도면 한 세대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화랑곡나방(쌀벌레) 유충은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여 창고, 주방, 식품품 저장실, 그릇장 내부와 같이 외진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특히 면 소재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 보온이 가능한 기저귀, 생리대, 화장지, 장기간 보관된 과자, 생필품 박스 내부 등에 침투해서 번데기를 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랑곡나방은 간혹 집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유충은 꼭꼭 숨어서 잘 띄지 않으므로 은밀한 장소에서는 벌레들이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더구나 이 유충이 번데기를 틀 때는 주로 심야에 안전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므로 사람이 쉽게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기저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쌀벌레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품 포장에 안내된 것처럼 제품 사용 중 보관에 조금 더 유의해 주신다면 벌레 유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벌레 유입 예방을 위해 식품 보관 이렇게 해 보세요

- 식품은 적은 양을 구입하여 단기간에 사용하세요
- 식품은 밀봉하여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하세요
- 식품을 어두운 곳에 장기간 보관하지 마세요
- 식품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 벌레가 발생한 식품은 폐기 하세요
- 박스로 구입한 제품은 박스에서 빼내어 보관하세요 (골판지 박스 장기간 보관 금지)



스마트폰으로 찍어 유허킹벌레 홈페이지에 있는 '기저귀 벌레 유입 예방 백서'를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아기 기저귀 궁금해요

기저귀 냄새? 안심하세요!

기저귀에서 발생한 냄새는 기저귀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고유의 냄새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저귀 제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원재료는 각각 고유의 냄새를 지니고 있으며, 이 냄새는 생산과정 중의 물리적 가공, 열과의 반응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저귀 제조에 사용되는 천연 펄프, 부직포류, 방수필름, 접착풀 등의 자재 중 천연 펄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재료는 각각 고유의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봉합 처리에 필요한 접착풀을 녹여주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 보다 다소 높았을 경우 약간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제품 개봉시 통풍이 되어 곧 냄새가 사라지며 인체에는 무해하니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러한 냄새의 원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품 및 자재의 개선과 개발을 수행하여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저귀를 만드는 원료인 펄프는 고유의 특성상 주변의 냄새와 수분을 쉽게 흡입하는 성질이 있어 판매처나 가정에서 보관 중 주변의 냄새를 흡입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저귀 보관법

기저귀는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봉한 후 장시간 방치하면 그 특성상 경우에 따라 제품이 변색되거나 냄새가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관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아기 기저귀를 마지막 한 장까지 보송보송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기저귀 보관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장소는 피해 주세요!

-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
- 습하고 먼지가 있는 장소 (예 : 부엌, 하수구 근처 등)
- 에어컨, 히터 등 기온이 높거나, 기온 변화가 큰 곳
- 밀폐된 자동차 안 (특히, 여름철)
- 아기손이 닿을 수 있는 곳 (아기가 기저귀 백을 풀어 헤치거나, 경우에 따라선 제품의 내용물을 먹을 수 있으므로 아기 손에 닿지 않게 해주세요)
- 벌레가 생기기 쉬운 곡물(식품) 보관장소

* 불가피하게 백이 풀어진 상태로 제품을 보관해야 한다면 잘 밀봉해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보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SOS! 도와주세요

소아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두 돌까지 아기 건강을 위한 육아 의학 정보

두 돌까지 아기 건강, 이것이 궁금해요!

착용했던 기저귀가 붉게 물들었는데 괜찮을까요?

가끔 착용한 기저귀가 붉게 물들어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는 걱정을 하시거나, 기저귀 이상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스텔 계통의 분홍빛을 띠기도 하지요. 기저귀가 붉게 물드는 것은 대부분 소변속에 들어 있는 요산 때문인데 만약 피가 원인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검어지지만 요산 때문에 붉게 물든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그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요산은 인체 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어 배설되는 물질인데 그다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산은 한두번 나오다 말수도 있고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아기가 먹는 모유나 분유의 섭취량을 조금 더 늘리면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저귀가 붉게 물드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다른 질환이 없는지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로감염은 왜 생기나요?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져 요관, 방광을 거쳐 요도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소변이 나오는 통로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요로감염이라고 합니다. 영아기 때는 여자아기보다 남자아기에게 더 흔하게 발생하고, 남자아기의 경우 표피에 존재하는 세균에 의해 요로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영아기 이후에는 요도가 짧은 여자아기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여자아기의 경우 대변을 봤을 때 뒤쪽에서 앞으로 닦으면 대변 속에 있는 대장균을 비롯한 수많은 균들에 의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문과 외부 생식기의 청결을 유지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의 손을 잘 닦지 않고 외부 생식기를 자주 만지는 것도 세균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손을 자주 씻어 주는 것이 좋으며, 통 목욕보다는 흐르는 물에서 씻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 아기들도 질염이 생기나요?

아기 기저귀를 갈면서 흰색을 띤 끈끈한 분비물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 여성과 달리 아기의 질내내 산성이 아닌 중성으로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 기회에 노출될 경우 영 유아에게도 질염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고름색을 띠 경우 질염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세제나 화장품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월 쯤 아기가 기거나 걷기 시작하면 둘러 싸여 있는 주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을 시작합니다. 서랍을 열어 내용물을 모두 끄집어 내놓기도 하고, 싱크대 안의 그릇을 모두 꺼낸 후 그 속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거나 입으로 가져가서 먹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주로 빨래 세제나 살충제, 화장품, 아기용품, 가정 상비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 엄마의 세심한 아기보기가 필요합니다.

SOS! 도와주세요

아기가 세제를 먹었을 경우

- 아기가 먹은 양이 많지 않을 경우 토하게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주방세제** : 미지근한 물이나 우유를 많이 마시고 토하게 해주세요
- **질병세제** : 질병세제는 먹어도 인체에 안전한 가식성 세제입니다. 아기에 물 많이 먹어 내용물을 희석시켜 주세요
- 제품은 항상 아기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아주세요
- 응급조치 후 가능한 한 빨리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기가 화장품을 먹었을 경우

- 요즘 화장품의 경우 중금속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어떤 성분을 얼마나 먹었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제조 회사에 문의하여 아기에 문제가 될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중독 사고의 조치사항

아기가 무언가를 먹고 구토, 복통, 호흡곤란, 경련을 일으키거나 졸려 한다거나 잘 놀지 않는다면 119에 연락하여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아울러 삼킨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은 전문의에게 보여 줍니다. 많은 양을 먹어 위 세척이 필요한 경우 30분~1시간 이내에 시행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빈초산, 양젓물 같은 강산, 강 알칼리성 물질이나 석유, 휘발유 같은 휘발성 유류는 토하면서 위나 식도가 재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만약 폐로 들어간다면 폐렴 발병의 우려가 있으므로 토하게 하거나 위 세척을 해서는 안됩니다. 가정에서 최소한의 조치로 물이나 우유를 먹여 희석시키고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의 중독사고, 119에 연락하세요! 중독사고 예방, 엄마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요"

? 아기가 뭔가 삼켰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식은 1세 미만의 아기의 사망 사고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될 만큼 심각합니다. 액체가 기도로 넘어간 경우는 대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딱딱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를 막은 경우에는 숨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심한 기침과 함께 격격 대는 소리를 내게 되며, 아기가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무언가를 삼켰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액체 종류를 잘못 삼켰을 경우

-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기침이나 헐떡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기침 반사를 통해 밖으로 배출하게 되므로 위험하지 않으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딱딱한 물질이 목에 걸렸을 경우

- 말이나 호흡이 가능하면서 기침을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기침을 계속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물질을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해 꺼내려다 증세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런 행동은 자제하며, 딱딱한 이물질이 기도를 막으면 숨을 쉬지 못하고, 울거나 소리를 내지도 못하며 아기는 발버둥치며 무척 괴로워하고 얼굴은 빨갛게 되었다가 파랗게 변해갑니다. 이런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OS! 도와주세요

질식 사고의 예방조치

- ☑ 4세 미만의 아기에 덩어리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 ☑ 부드러운 음식을 줄 때도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 잘라 줍니다
- ☑ 충분히 씹은 후에 삼키도록 하고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입안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 ☑ 고무 풍선이나 비닐 등 이물질을 빨거나 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작게 분리가능한 장난감, 수은 배터리 등은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합니다
- ☑ 아기가 입 안에 껌이나 다른 물질을 넣은 채로 뛰어 놀지 않도록 합니다



? 아기피부에 상처가 났어요!

대부분의 아기가 잘 걷게 되면서 활동반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위험한 물건에 손을 대거나 넘어지고 부딪혀서 피부에 상처를 내기가 쉽습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집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 아이를 안심시키게 되는데, 만약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피부 깊숙이 찢어진 열상인 경우는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우리 아기가 뜨거운 물에 데었어요!

화상의 대부분은 집에서 일어나고 뜨거운 물이나 전기밥솥, 음식 등에 의한 경우가 많고 주로 3~4세 이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화상을 입은 부위의 옷을 걷어 주고 부드럽게 흐르는 물이나 그릇에 찬물을 받아 화상 부위를 부드럽게 닦으면서 식혀 줍니다.

아기의 화상예방, 이것부터 주의하세요!

- ☑ 정수기의 온수 밸브가 아기 손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 전열기구가 아기 손에 닿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합니다
- ☑ 식탁보를 잡아 당겨 식탁 위의 뜨거운 음식에 데지 않도록 식탁보를 관리합니다
- ☑ 가전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항상 플러그는 전원에서 뽑아 놓습니다
- ☑ 집안의 전기기구(콘센트 등)에 안전장치를 하여 전기화상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 아기가 열이 나요, 어디가 아픈 걸까요?

일반적으로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 고열이라고 하며, 열은 엄마들을 불안하고 긴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열은 하나의 증상으로 단순한 체온의 상승이 아니라 해로운 균에 감염 되었을 때 이 균들과 대응하기 위한 현상으로 감염에 대한 생체의 적극적인 방어반응이므로 우리 몸에 해로운 것 보다는 면역학적으로 이로운 점이 더 많습니다. 아기 몸에 열은 있으나 행동이 정상시와 같다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이 있을 경우 우선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해열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해열제를 먹은 후에도 열이 잘 내리지 않을 경우,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목 뒷 부분과 등을 먼저 적신 다음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순서로 닦아줍니다.

- 잠깐, 잊지마세요!** * 알코올은 피부로 흡수되므로 열을 내리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돼요.
- * 열이 나면 충분한 수분 공급도 잊지 마세요.

❓ 아기의 변이 이상해요!

대변의 색은 분유를 먹는 경우 연한 썩색이나 잿빛 노란색을 띠고 진흙과 같은 정도의 굳기이고, 모유수유 변은 색도 다양하며 거품이 많고 물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루에 8~12번 모유수유하는 경우, 생후 5~7일경이 되면 소변 6회, 대변은 3~4회 정도 보게 됩니다.

아기 변의 색깔은 아기의 기분이나 장의 상태에 따라서 황금색, 녹색, 갈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심한 설사를 하거나 점액질이 섞여 나오지 않는 한 정상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변의 상태보다는 아기의 상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기분이 좋고 몸무게가 잘 늘고 있다면 변의 색깔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흑변

생후 수일간은 흑갈색을 띤 대변을 보며 정상적인 색깔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흑갈색의 변을 본다면 반드시 변을 소아과에 가지고 가서 위나 십이지장과 같은 상부위장관에 출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녹변

대변의 색이 노란색이나 녹색을 띠는 것은 담낭에서 분비되는 담즙 액이 녹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담즙이 장에서 쓰이는 양보다 다소 많이 분비 되었을 때, 녹색채소가 많이 함유된 고형식을 먹었을 때, 음식물의 장 통과 시간이 빨라졌을 때,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장염에 걸렸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의 색깔 보다는 양상입니다. 변의 상태가 정상이고 아기가 잘 먹고 잘 놀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모유를 먹는 아기라면 엄마가 먹는 음식에 변화가 있거나 우유 알레르기가 원인일 수도 있고, 또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장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아기들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장염은 급성구토와 설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으로 오염된 음식물, 장난감 또는 손 등을 통해서 입으로 전염 됩니다. 설사를 하면 탈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때는 탈수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기가 탈수가 되면 입술과 입안이 마르고 기운이 없어 보이며 기저귀 가는 횟수가 줄어 듭니다. 변을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묽게 보아 설사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용한 기저귀를 가지고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묽은 녹색변

전유 후유 불균형이 심한 경우 묽은 녹색변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방이 부족한 전유만 먹게 되면 이런 현상이 계속 되어 체중이 적게 나갈 수 있고 아기가 보채고 힘들어하며 엉덩이가 헐게 되기도 합니다. 젖 먹는 도중 잠이 들면 트림을 시키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방을 좀 시원하게 해주어 잠을 깨운 후에 바로 수유를 계속하여 젖을 다 비워 주어야 합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젖을 끝까지 먹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백색변

아기가 먹은 유지방이 응고되어 나오는 경우 흰 몽우리라 섞일 수 있는데 이것은 소화불량이나 다른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염에 걸리거나 어떤 이유로 장 운동이 증가해도 변에 흰 몽우리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지만 변 전체가 순두부와 같이 흰색을 띤 경우, 이것은 간 또는 담도에 이상이 있어 담즙에 섞이지 못하거나 선천적으로 담도 폐쇄증인 경우 무 담즙 변을 보는데 이럴 경우 조기진단이 필요합니다.

피나 색깔이 자장면, 토마토 케첩 같은 점액(곱)이 섞여 있는 변

변에 많은 피나 점액이 섞여 있다면 즉시 소아과를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아기의 장에 심한 염증이 있는 등, 중한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가 많이 나온다면 혈액응고에 문제가 있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응급질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김수자 : 이인복 원장 (현, 인천 다정소아과 원장)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가 행복하다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모유수유 노하우

여러가지 모유수유 자세

요람안기 자세

가장 흔한 자세로 쿠션을 받쳐주면 아기에 쉽게 먹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젖을 물린 후 바로 왼쪽 젖을 물릴 때 편합니다



옆으로 끼운 자세

아기가 작은 경우 아기 몸을 엄마가 겨드랑이 밑에 두고 머리를 엄마가 손으로 받쳐주어 유방 앞에 오게 해 수유합니다



누워서 먹이는 자세

가장 편한 자세로 엄마가 아이를 향해 마주보고 젖을 물립니다. 수유 중에도 쉬 수 있고, 밤중 수유 시 편한 자세입니다



젖 물리기

아기 입을 충분히 벌려 유륜까지 넣어주세요. 모유는 유두에서 나오지만 유륜의 근육성 탄성조직의 수축으로 모인 모유를 배출하게 되므로 유륜까지 물려야 합니다

모유 수유맘 O, X

모유수유 중에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으면 안 된다?

X 모유수유 중이라고 아픈데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 처방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모유수유중임을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모유수유를 일시 중단 할 경우, 엄마는 젖을 자주 짜서 비우고 유축해 놓은 모유를 컵이나 스푼을 이용해 수유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약 복용Tip** 약물은 모유수유 직후 복용이 가장 좋습니다

유선염과 젖몸살이 있으면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X 모유수유하는 엄마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인 유선염은 유방의 젖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모유수유에 지장이 있을까 치료를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유수유를 하면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단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유를 통해 젖을 비우고 아픈 쪽 젖을 따뜻한 찜질이나 마사지를 해주며 쉬는 것이 좋습니다.

젖량 늘리는 유방 마사지

출산 후 수유를 할 때마다 가슴 마사지를 해주면 모유 분비가 원활해지며 젖몸살을 막아줍니다



1 한쪽 손으로 유방을 고정하듯 감싸 친 후 엄지손가락으로 유방 옆 부분을 힘 쥐 문질러 줍니다



2 유방 아래쪽에 한 손을 대고 떠받치듯 들어올린 후 다른 한 손으로 유방을 위로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3 양손으로 유방 바로 아래쪽을 받치고 힘을 주어 가슴을 들어올려 줍니다

모유수유 중 파마나 염색해도 괜찮다?

O 모유수유 중 파마나 염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냄새에 예민하면 수유를 거부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엄마의 두피가 예민해진 상태 이거나 머리에 상처가 난 경우라면, 화학약품의 흡수가 많아 질 수 있어 완전히 나은 후에 파마나 염색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아토피, 모유로 예방할 수 있다?

O 모유수유는 면역력을 길러주고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유를 최소 4~6개월 이상 수유하고 그 후 이유식 등 보충식을 주면 유아기 음식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반복성 천명과 천식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모유수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더블하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육아 우울증?

혹시 우울한가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해집니다. 우울도를 체크해보세요



우울도 자가 진단 Depression Self-test

번호	자가 진단 문항 내용	전혀	약간	보통	매일
1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	0	1	2	3
2	최근 들어 말수가 급격히 줄어 들었다	0	1	2	3
3	하는 일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0	1	2	3
4	식욕이 많이 저하되었다	0	1	2	3
5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커졌다	0	1	2	3
6	하는 일마다 능률이 오르지 않고 의욕이 저하되었다	0	1	2	3
7	문득 문득 두려움이 느껴졌다	0	1	2	3
8	잠을 잘 이루지 못해 늘 피곤함을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불현 듯 슬픈 마음이 느껴져 힘들었다	0	1	2	3
11	갑자기 울고 싶을 때가 있다	0	1	2	3
12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3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4	늘 불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0	1	2	3
15	주위 사람들이 있어도 난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6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려웠다	0	1	2	3
17	하는 일마다 힘겹고 에너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0	1	2	3
18	자신의 존재가 항상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9	가족과 친구의 도움에도 우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0	1	2	3
20	신경이 예민해지고, 신경 쓰이지 않던 일들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0	1	2	3
각 점수별 합계					

* 본 결과는 우울증 자가 진단으로서의 참고 자료이며 본인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주)김동철 심리케어 / 하기스&더블하트 모유수유 캠페인

결과 0~9점 비우울증 16~24점 우울증
10~15점 경도 우울증 24점 이상 주요 우울증

유한킴벌리 육아포럼 소개

유한킴벌리 '육아포럼'

www.woorinanumtv.org



행복한 육아의 방향을 제시하다



유한킴벌리 '육아포럼'은 부모로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설레임 가득한 예비맘과 아기를 키우는 순간순간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을 경험하는 초보맘을 위하여 부모됨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기획된 '우리 아이를 위한 좋은 부모 되기' 전문가 육아 강연입니다.

특히, 육아포럼은 현장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팅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예비·초보 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강연 중 질문도 남기고, 강사를 통한 답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유한킴벌리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물로 드립니다

유한킴벌리 육아포럼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나라TV (www.woorinaumtv.org)에서 확인하세요



일시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대상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예비부모, 초보부모



장소
현장참여 : 문학의 집 서울
온라인참여 : 우리나라TV 접속 후 생방송 시청



신청
매월 포럼 후 오후 2시부터 익월 강연 신청 접수



스마트폰으로 찍어
우리나라 TV 모바일 바로가기 실행해 보세요

유한킴벌리 제품 소개

유아·아동용품



아이들을 껴안다
하기스 = HUG 껴안다 + **아기들** 아기
 하기스는 영어와 한글을 합쳐서 탄생한 이름입니다.
 아기의 행복이 곧 하기스의 행복이니까요!

주요제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팬티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기저귀



하기스 매직팬티



하기스 매직 기저귀



하기스 아기물티슈는 아기 피부를 위해 천연펄프만을 고집합니다.
 아기 피부는 이제 닦으면서 지켜주세요!

주요제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하기스 프리미어



하기스 퓨어



더블하트는 엄마와 아기의 두 마음이 만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기를 향한 엄마의 마음처럼 아기를 위해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유아용품 브랜드입니다.

주요제품



모유실감 젖병



수유패드



마그마그 스트로컵



이유식 피딩세트



유아전용 섬유세제/유연제

여성용품



깨끗함이 달라요!
 화이트 시크릿홀의 오묘한 흡수과학

주요제품



화이트 시크릿홀 울트라



화이트 입는 오버나이트



화이트 애니데이 팬티라이너



화이트 탐폰



마음까지 편안해서 좋은느낌
 좋은느낌으로 그 날 피부는 물론 마음까지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주요제품



좋은느낌 좋은순면 울트라



좋은느낌 한초량



좋은느낌 팬티라이너

가정용품



주요제품



뽀뽀 프리미엄



뽀뽀 3겹 아트 플러스



주요제품



크리넥스 데코&소프트



크리넥스 토이프렌즈



크리넥스 입체마스크



주요제품



스카트 블루 행주타올



스카트 황금 빨아쓰는 타올



주요제품



크리넥스 마이비데



크리넥스 마이비데 키즈

스킨케어



완벽한 아기 피부를
자연으로 지키는 그린핑거



10대답게, 우리답게
10대를 위한 프리미엄
10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티엔

주요제품



그린핑거 네이처메이드 그린핑거 촉촉한 자연보습 그린핑거 마이키즈 그린핑거 선케어

주요제품



티엔 촉촉 레서피 티엔 AC컨트롤 레서피 티엔 스페셜 레서피

시니어케어

디펜드 스타일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요실금 전문 브랜드, 디펜드

주요제품



디펜드 스타일 라이너 디펜드 스타일 패드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 여성용 슬림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 남성용 슬림

엄마와 아이를 위한 가치 있는 선택

믿고 주문하는 유한킴벌리가 만든 유아동 쇼핑몰 **momQ**

아이 생일만 입력하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월령별 육아정보와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www.momQ.co.kr

유한킴벌리 아기·어린이용품의 제품안전 정책



소비자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유한킴벌리 아기·어린이용품의 제품 안전 정책

유한킴벌리 모든 제품은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품 안전성 연구를 통해 '설계에서 사용'까지 전과정에서 더욱 높은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

모든 제품은 법적 안전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제품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02

모든 제품은 설계 단계에서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03

지속적인 제품안전성 연구를 통하여, 더 높은 제품 안전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안전한 원료 사용에 대한 약속



모든 원료는 법적 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려가 있는 '안전성 우려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 우려 물질'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함께 국내외 물질 규제 동향, 소비자 안전문제, 학술 자료 등으로부터 원료의 안전성을 지정하며, 최신의 안전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규제대상이거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물질
- 소비자에게 안전성에 대한 잠재적 우려가 있는 물질
- 최신 연구 결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물질
- 기타 안전성 정보가 부족한 물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한킴벌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다 자세한 제품안전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